

## ◇미숙아 동맥관 개존증의 조기 외과적 치료 [인도메타신 투여와 조기 결찰술의 비교]

이 조한, 이석재, 김오곤, 홍종면, 한헌석\*, 박범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동맥관 개존증이 있는 미숙아는 원발성 폐질환 등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미숙아에서의 동맥관의 지연 폐쇄는 심부전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혈액학적 중요성이 보고되어 왔다. 이에 대한 치료로 인도메타신을 투여하고 인도메타신의 비적응증이나, 투여 후 폐쇄가 되지 않는 경우 외과적 결찰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미숙아에서 인도메타신 사용의 제한요인 및 합병증, 높은 실패율과 폐쇄 후 재단락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소아마취의 발달과 수술 이환율의 감소로 인해 조기에 외과적 결찰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두 가지의 치료방침중 어떠한 것이 실제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향적 연구로 시행되었다.

**방법** : 1995년 7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충북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동맥관개존증을 동반한 1500 g이하의 미숙아 27명을 대상으로 인도메타신치료를 받은 군과 인도메타신치료 없이 직접 외과적 결찰술을 시행 받은 군으로 대별하여 치료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27명중 14명의 환아가 인도메타신투여를 받았고 이중 6명[43%]이 인도메타신 치료에 실패하였으며, 6명중 5명이 외과적 결찰술을 시행 받았다. 합병증은 6명[43%]에서 발병하였고, 합병증으로는 괴사성장염 3례, BUN/Cr의 상승 및 소변양의 감소 2례, 상부위장관 출혈 1례, 두 개내 출혈 1례가 있었다. 14명의 인도메타신 투여 환자의 사망은 4명[29%]이었으며 이중 인도메타신 투여의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가 2례[14%]가 있었다. 13명의 환아는 인도메타신 투여 없이 외과적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 및 마취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은 없었으나 병원 사망은 5명[38%]으로 높았다.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인도메타신 투여 비적응증인 환자 6명을 포함하여 술 전 환자 상태가 비교적 인도메타신 투여 군 보다 좋지 않았던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결론** : 동맥관개존증을 동반한 1500g 이하의 미숙아에서는 인도메타신 투여 시 투여제한요인 및 높은 합병증과 실패율로 인하여 외과적 결찰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책임저자: 이 조한(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발표자: 이 조한(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